

■ 2026 새해설계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

“웅비하는 80년 전남 체육…새로운 백년대계 그린다”

공정·육성·화합·소통 등 4대 핵심가치 설정
국제인재 육성·도민 체감형 생활체육 집중

“전남 체육 80년의 성과 위에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 회장은 병오년 신년사를 통해 ‘전남체육 80년! 도약하는 100년’이라는 비전 아래 스포츠를 통한 도민화합과 건강한 체육 생태계 조성, 전남체육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송 회장은 공정하고 선진적인 체육행정, 세계로 웅비하는 전남체육인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도민화합, 전남체육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 강화를 해설 목표로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육성·화합·소통의 4대 핵심 가치를 설정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전남체육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전남도체육회는 총회·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체육행정 시스템 고도화와 회원종목단체 평가·등급심의를 통해 선진적인 행정 기반을 구축한다. 또 임·직원 직무역

량 강화 워크숍과 청렴·인권 교육, 진단컨설팅 대비 교육을 제계적으로 추진해 AI 시대에 걸맞은 체육행정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한다.

특히 12월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앞둔 만큼 올바르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 관련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사전 교육과 안내를 통해 공명정대한 선거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어 청렴을 핵심 키워드로 한 브랜드 강화 전략을 추진, 도체육회가 명실상부한 전남 체육의 컨트롤타워로서 소통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힘쓸 예정이다.

전문체육 분야에서는 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주요 전국대회 참가를 적극 지원한다.

우수선수의 체계적인 육성·관리와 전문체육지도자 운영을 통해 전남 선수단의 경기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여기에 선수 맞춤형 지원과 단계별 육성 전략을 통해 유망주 발굴부터 엘리트 선수 성장까지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육성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략종목 집중 육성, 실업팀 창단 및 운영 지원, 국제종합경기대회 참가 확대를 통해 전남 체육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전남 출신 선수들이 국내 무대를 넘어 세계무대에서도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해 유소년부터 성인까

지 이어지는 선수 발굴·육성 체계 또한 공고히 한다.

도스포츠클럽체육대회 개최, 지정·공공스포츠 클럽 운영,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스포츠체험캠프 및 체육영재 발굴 캠프 운영을 통해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또 전남스포츠과학센터 지원 확대와 과학적 훈련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도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적극 뒷받침한다. 각종 전지훈련 유치와 국제교류 확대, 일본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의 우수성적 선수 배출을 통해 전남을 전지훈련의 중심지이자 국제 스포츠 교류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남 체육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생활체육 환경 개선에도 집중한다.

도체육대회, 도생활체육대축전, 도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등 각종 도 단위 대회와 도지사기, 도체육회장기, 협회장기 대회 등을 통해 도민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한다.

연령·계층·지역을 아우르는 대회 운영으로 체육을 매개체로 한 도민화합과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지도자 역량 강화를 통해 현장 지도 전문성을 높이고, 생활체육교실과 동호회리그 운영,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로써 ‘일상 속 체육, 평생 체육’ 문화가 전남도 전역에 자연스럽게 정착시킨다는 복안이다.

특히 도체육회는 전남 체육 80주년을 맞아 전남체육 CI 제작과 스포츠마케팅·홍보 강화 등을 통해 전남체육의 역사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미래 비전을 대내·외에 널리 알린다.

동시에 회원종목단체 및 시·군체육회와의 체계적인 소통과 지원을 강화해 상생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전남체육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체육인 복지 확대, 체육진흥 유공자 시상, 인재육성장학기금 운영 등을 통해 체육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안정적인 체육활동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행복한 전남체육인’ 실현에도 지속적으로 힘쓴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2026년은 전남체육 8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10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공정한 행정과 체계적인 육성, 도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으로 전남체육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지역 빛내는 스포츠 스타들, 노력의 결실 맺길”

시도체육회, 진천선수촌 선수 격려
광주, 17개 종목 31명…18명 입촌
전남, 7개 종목 9명 참가 ‘구슬땀’

광주·전남 스포츠 스타들이 국제대회 선전을 위한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했다.

광주·전남체육회는 7일 오전 10시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 벨로드롬에서 열린 ‘2026년 국가대표선수단 훈련개시식’에서 국가대표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고 소속 선수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개시식은 대한체육회가 새 시즌 국가대표 선수단의 훈련 시작을 알리고, 각종 국제대회 선전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에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효민 대한체육회장, 김택수 진천선수촌장, 시도체육회 및 종목단체 관계자 등 800여명이 함께 행사에 축하하고 선수단을 격려했다.

광주 소속 국가대표선수단은 17개 종목 31명(선수 27명·지도자 4명)으로, 현재 진천선수촌에 입촌한 선수단은 18명이다. 김국영(육상), 김종이(하키), 박삼열(레슬링), 박후성(역도) 지도자가 종목별 코칭스텝으로 합류했다. 김경환(근대5종), 손현호·안시경(이상 역도), 고승환·이재성(이상 육상), 김지선(조정) 등 광주 소속 선수들이 이전 선수촌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전갑수 시제육회장 등 임직원은 행사 종료 후 광주 소속 선수 및 지도자들과 만나 그동안의 노고에



광주시체육회는 7일 오전 10시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 벨로드롬에서 열린 ‘2026년 국가대표선수단 훈련개시식’에 전갑수 광주광역시체육회장 등 임직원이 참석해 국가대표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고 광주 소속 선수들을 격려했다.

김사를 전하고,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하는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또 국가대표로 활약 중인 광주 선수들에 대한 현장 격려와 지원을 통해 광주체육의 위상 제고에 힘쓸 것으로 약속했다. 이에

광주 선수단은 체계적인 훈련과 결속력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주요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겠다는 각오다 달렸다.

전갑수 광주광역시체육회장은 “전천국가대표선수촌은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들이 꿈을 키우는 공간”

이라며 “광주를 대표해 국가대표로 훈련에 임하는

만큼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에서도 국가대표 훈련에 임하는 선수단을 격려하고 선전을 기원했다.

전남 소속 국가대표선수단은 7개 종목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원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 입촌해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근대5종 서장완·김영하, 복싱 박초롱·주태웅, 수영 한효민, 유파 김지정, 펜싱 권오민, 역도 이현석, 육상 김장우 등이 그 주인공들이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훈련개시식 종료 후 전남 소속 국가대표 선수들과

직접 만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한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진전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새롭게 시작된 국가대표 훈련의 출발선에 전남 선수들이 함께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전남 선수들은 그동안 끊임없는 노력과 절제한 자기 관리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경쟁력을 높여 왔으며, 이번 훈련을 통해서도 굳은 의지와 집중력을 발휘하여 국민들께 전한 감동을 전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베네수엘라 하늘길 막혀 ‘비상’

KIA 카스트로 등 KBO 선수 5명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전격적인 군사 작전을 단행하면서 전 세계 스포츠계에 도 비상이 걸렸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7일(한국시간) “미국의 군사 작전 여파로 베네

수엘라에 체류 중인 수많은 프로 선수, 특히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소속 선수들의 이동 일정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작전 당일인 3일(현지시간) 카리브 해 일부 지역에 비행 제한 조치를 내리면서 항공편이 줄줄이 결항했고, 현지에 머물던 선수들의 발이 묶인 것이다.

MLB 개막 로스터에 포함된 베네수엘라 출신 선수는 60명이 넘으며, 마이너리그와 원터리그 참가 선수를 합치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난다.

스프링캠프 시작까지 약 한 달의 시간이 남아 있지만, 항공 대란이 장기화할 경우 캠프 합류 지역은 불가피하다.

클리블랜드 가디언스, 볼티모어 오리올스 등 MLB 구단들은 일제히 “선수들과 연락해 안전을 확인했다”면서도 리그 사무국의 지침에 따라 구체적인 언급은 아끼고 있다. 일부 선수는 육로를 통해 필사의 탈출을 감행하기도 했다.

한국프로야구 KBO리그에도 불똥이 뛰었다.

올 시즌 KBO리그에서 뛸 외국인 선수 가운데 베네수엘라 국적은 요니 치리노스(LG트윈스), 요나탄 페라자, 윌헬름 에르난데스(이상 한화이글스), 베터 레이에스(롯데자이언츠), 해럴드 카스트로(KIA타이거즈) 등 5명이다.

스프링캠프 시작을 앞두고 외국인 선수들의 입국 일정을 조율 중이던 KBO 구단들은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 5명 가운데 당장 신변에 문제가 생긴 선수는 없고, 일부 선수는 이미 베네수엘라를 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2019년부터 베네수엘라 직항 노선 운항을 중단해 그동안 선수들은 파나마나 콜롬비아 등을 경유해 이동했다. 하지만 이번 군사 작전으로 인근 국가로 이동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 각 구단은 선수들의 안전 확인과 함께 우회 입국 경로 확보에 분주한 모습이다.

KBO 사무국 관계자는 “베네수엘라 출신 선수 신변과 관련해 특이사항을 보고한 구단은 없다”면서 “이후에 협조 요청이 온다면 리그 차원에서도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내 정상급 선수들 집결…전남, 육상 메카 ‘우뚝’

진도·해남 등서 동계훈련 돌입…스포츠마케팅 활성화·종목 발전
포환던지기 문혜솔·해머던지기 박지성, 국가대표 후보 발탁 영예

전남이 대한민국 육상 전지훈련 메카로 우뚝 선다. 7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전남 육상의 미래 기대주가 포함된 2026년 육상 국가대표 후보선수단의 동계합숙훈련이 지난 5일부터 약 3주 동안 진도 공설운동장과 해남 우슬경기장 등에서 분산 개최되고 있다.

먼저 중·장거리 선수단 37명은 오는 21일까지 진도공설운동장에서 합숙훈련을 진행한다. 단거리(34명) 분야도 같은 일정에 예천스타디움에서 진행된다.

도약분야(38명)는 오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전남 해남군에 캠프를 차린다. 투척분야 역시 12일부터 2월 1일까지 예산종합운동장에서 실시한다. 이번 국가대표 후보 선수단에는 ‘전남 유망주’ 문혜솔(포환던지기)과 박지성(해머던지기, 이상 전남체육고 3년)이 발탁되는 성과를 거뒀다.

문혜솔은 고교 2학년 때인 2024년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13.58m의 개인 최고기록을 작성하며 금메달을 차지, 국내 투척 종목을 이끌 차세대 유망주로 주목받고 있다.

박지성 또한 2024 전국육상경기대회에서 50.21m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획득하며 꾸준한 성장세

를 이어가는 중이다.

겨울철을 맞아 전남 해남, 진도 등에 동계훈련캠프가 차려진 것은 지역의 우수한 체육 인프라와 온화한 기후 여건이 활용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남은 그동안 전국체육대회와 각종 전국규모 대회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대한민국 육상 전지훈련의 최적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문혜솔, 박지성의 경우 훌코트나 다른 지역에서의 훈련량 소화를 통해 경기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가대표 후보선수 동계합숙훈련 유치는 전남 체육의 경쟁력과 신뢰도를 다시 한번 대외적으로 확인시키는 계기가 된 셈이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전남 선수들의 국가대표 후보선수 발탁은 체계적인 육상 시스템과 현장 지도자들의 헌신이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며



문혜솔



박지성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